

로움이 인물들의 불안감과 어울렸어요. 하나하나 춤추고 밟고 있게 관객인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느꼈어요.

**최영주** 강광원이 예전에는 고전을 통해 양식적인 측면에 집중했다면,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 내용에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싶었어요. 사회적 서사를 연극 무대로 가져 와서 자기만의 연극적인 형식으로 구축하고 탐색하고 있는 지점을 봤어요. 다음의 시도가 궁금해져요.

###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공옥진의 병신춤 편>

**최영주** 공옥진에 대한 인상이 있잖아요. 병신춤을 추는 공옥진에 대한 기억이 그로테스크하게 있어요. 이 극단이 왜 공옥진의 병신춤을 소재로 삼았을까 궁금했어요. 병신춤을 춘다는 것 자체를 계승의 의미로 다큐멘터리 방식에서 포착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거칠고 면밀하지 않았지만, 전통을 현재화한다는 지점을 과거에서처럼 미학적 측면에서 포착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방점을 찍었죠. 반면에 텍스트 구성이 조금 더 정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딸 많은 집에서 태어난 공옥진이 일본으로 팔려가고, 소리와 병신춤 배웠다는 것이 하나의 저항이고 자기발명self-fashioning으로 이해된다면, 여성, 자아, 역사와 연계되어 의미가 풍부해질 수 있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며 끝나서 아쉬웠어요.

**김숙현** 세 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통의 현재화에 관한 문제. 둘째, 공옥진과 그의 춤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포착하는 문제. 셋째, 병신춤이 키네틱 센서와 같은 기계에 포착해서 재현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 그런데 율한솔 연출은 세 번째, 그런 형식, 방식에 관해

말하고 싶었던 기쁨이요.

**최영주** 네, 아이디어가 반짝였어요. 병신춤을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재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인물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김숙현** 저는 그 지점이 아이디어로 출발해 아이디어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영주** 만약 이 작품에 무언가를 더 넣으면 설명적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위태로웠던 지점은 장애에 대한 대상화였는데, 잘 피해간 것 같아요.

**김숙현** 장애문제를 피하는 방식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흔히 재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한가. 그리고 춤 역사, 전통춤, 혹은 공옥진의 춤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80년대 초반 실제로 공옥진의 춤을 봤거든요. 공옥진은 춤을 추면서 자신의 춤을 하나씩 다 설명해줘요. 자신이 왜 이 춤을 추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당시에도 그 춤을 추며 장애인비하라는 면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래된 기억이라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당시 그가 말한 바로는 자신의 동생이 장애인이었다고 죽었다고 했어요. 기억의 몸짓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들 몸짓으로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최영주** 미니멀하게 구축하며 개념화시켰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대상화를 차단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 앞에서 불편한 몸짓을 해도 뛰어가서 함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점이 신기했어요. 정상인이 하는 장애인 흉내를 그런 공공연한 공간에서 한다는 것은 의도 자체가 정치적인 거죠. 그 정도의 의미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담담하게 형식화 시켰다는 점이 절묘했습니다.

**김유미**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장애를 대상화하는 것을 피해갔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데 어떤 점에서는 그 분절화가 되게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순간마다 자꾸 놓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최영주** 텍스트의 두께가 얇아서 그런지도 모르죠.

###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김유미** 최치연 작품을 보면 정신은 없는데 그 작품만이 갖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최치연은 항상 에둘러 말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요. 이 작품에서는 국가 권력에 어이없게 희생된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어요. 30년 전, 국가와 전면으로 맞서기 힘들었던 때라 그렇기도 하지만 이들의 억울함의 성격이 개인적인 한풀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둘러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방법이 최선이었나 싶기도 해요. 사실 이오구의 집착은 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병적인 게 국가 기관의 횡포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 문제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선가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을 줘요. 김두관은 이오구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죠.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마지막에 2016년 촛불로 해결하죠. 1980년대를 고발하려는 것이지, 이오구와 김두관 같은 개인이 있어서 현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오구라는 인물을 통해 폭력의 희생에 관한 연민을 느끼게 하려는 것인지. 마지막에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최영주** 전적으로 동의해요. 최치연의 작품이 역사를 보되 직시하지 않고 그 옆 골목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포착해 역사의 심각함과 대비시키면서 국가와 개인의 문제로 제기하죠. 포착은

재밌고 흥미로웠어요. 역사라는 대서사를 희화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개인에게 닥친 그로테스크한 부조리를 포착한 점이 탁월해요. 그런데 의도를 발전시키고 전개하며 문제의식을 버리는 데서 혼돈스러웠어요. 최치연 작가가 왜 연출을 하는지 이유는 있겠지만, 1990년대의 다소 혼란스런 한국식 포스트모던 연극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다른 연출가가 했으면 텍스트의 문제를 공연에서 보완하고 상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김유미** 최치연 특유의, 유행에 뒤처지는 방식을 밀고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힘도 좀 못미쳤어요. 개인의 상처에 대한 애잔함을 표현하려면 촘스키론 방식도 괜찮은데 이것이 연극적으로 설득되려면, 에너지의 최대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이 되네요.

### 〈비평가〉

####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진아** 저는 〈비평가〉라는 이 희곡 자체가 좀 동의가 안 되었어요. 작가와 비평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와 같은 대단히 위계적인 구조로 되어있고 마요르가라는 작가가 이를 너무 당연시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심지어 마요르가의 전작들까지 다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세계관, 이런 인간관, 이런 예술관을 지닌 작가였구나 싶으면서, 지난 작품에 대한 나의 독해가 잘못된 것이나 싶더라고요. 연극 만들거나 비평, 혹은 작가의 존재에 대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여성 배우들이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작이 갖고 있는 남성 중심적이고 마초적인 세계가 너무